大學院教育 내실화를 위한 政策支援 방안

張 水 榮
(浦項工大 副學長)

1. 大學院이란 무엇인가

*Webster's New International Dictionary*에 의하면 대학원은 "A school or division of a university or college devoted entirely to graduate studies, usu. having a dean and faculty of its own, and authorized to grant advanced degrees"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대학생을 undergraduates와 postgraduates로 구분하는 것 자체가 英美制度이며 독일, 러시아,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없는 일이다.

미국에서도 法科大學, 醫科大學, 行政大學院, 經營大學院 등은 모두 학사학위를 받고 입학하는 대학원과정이며 별도의 교수진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일반대학원에는 별도의 교수진이 따로 없고 학부교수 중에서 대학원교수(graduate faculty)로 임명하는 것이 보통이다. 미국에는 대학원장제도가 있으나 영국에는 그러한 제도가 없다. 일본에서는 전체 대학원장은 없고 學部別로 研究科長이 있고 일반적으로 學部長이 겸임하고 있다. 캐나다와 호주는 미국과 영국식이 절충되어 대학원장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대학원'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고 물론 석사학위제도가 없으며 박사학위만 있다. 대학과정은 5~8년이 걸려서 반드시 논문이 통과되어야 Diplom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을 英美제도의 석사와 동격이라고 주장한다.

러시아에서는 독일의 제도를 많이 도입하여서 대학과정이 5년반이고 논문이 통과되면 Diplom을 받게 된다. 대학원장제도는 없으나 대학원을 아스삐란뚜라(Аспирантура)라고 하며 대학원 학생은 아스삐란뜨(Аспирант)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강의는 없고 3년간 연구해서 논문이 통과되면 'Kandidat Nauk'라는 학위를 받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準博士라고 하며 중국에서는 碩士라고 부른다.

박사학위는 Doctor of Science라고 부르며 보통 Kandidat를 받은 후 10여 년 후에 다시 논문이 통과되어야 받을 수 있고 정교수는 반드시 박사학위가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와 크게 다른 점은 대학뿐 아니라 연구소에서도 Kandidat 학위와 박사학위를 줄 수 있으며 각 대학과 연구소에는 어느 분야의 학위만 심사할 수 있다는 엄밀한 제한이 있다. 그리고 그 대학이나 연구소와 전혀 무관한 사람도 박사학위 심사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대학 4년, 석사 3년, 그리고 박사과정으로 되어 있어서 석사 3년을 제외하고는 우리 제도와 비슷하다. 대학원을 '研究生院'

〈표 1〉 세계 각국의 대학 현황

국 가	대학수	대학생수	대학원생수	연간학위수여자수			교 수	인 구	학생수/인구
				학 사	석 사	박 사			
한 국	141	1,070,169	96,577	178,631	22,438	3,211	36,484	43,520,199	2.68%
호 주	48	490,273	44,265	73,860	19,138	1,401	32,642	17,500,000	3.05%
미 국	1,653	6,169,450	1,380,813	991,339	362,307	34,120	357,175	245,807,000	3.07%
프랑스	554	1,480,300	183,200	87,405	84,887	7,652	53,110	56,173,000	2.96%
일 본	514	2,052,335	98,650	428,079	26,815	9,602	125,784	123,220,129	1.75%
독 일	298	1,639,700	미 상	179,167		7,700	102,057	77,563,685	2.11%
캐나다	68	499,177	118,902	103,775	16,269	2,415	35,800	25,142,000	2.45%
영 국	82	645,400	99,470	267,700	66,200	7,645	90,000	57,500,000	1.30%
C I S	904	2,991,000	146,000	440,000			388,000	284,110,000	1.10%
인 도	232	3,796,709	450,169	849,059	185,789	8,219	256,077	852,600,000	0.50%
중 국	1,075	2,066,000	112,776	553,000	약 3만	약 3천	393,000	1,151,300,000	0.19%

*자료 : 한국 : 『교육통계연보』, 1992.
호주 : Department of Employment, Education and Training, *Selected Higher Education Statistics*, 1991.
미국 : *Barron's Profiles of American Colleges*, 16th edition; *The Universal Almanac*, 1991.
캐나다 : *Commonwealth Universities Yearbook*, 1992.
인도 : *Commonwealth Universities Yearbook*, 1992.
영국 : The Department of Education & Science, *Analytical Services Branch.*
프랑스 : *L'Education nationale en chiffres*, 1990~1991.
독일 : Inter Nationes Bonn Press, *BW*, Nr. 11/12(e), 1990.
중국 : 日本銀行調査統計局, 『國際比較統計』.
일본 : 平成 3 年度 學校基本調査報告書.
CIS : Prof. O.V. Alekseyev, Rector The St. Petersburg, Electrotechnical University Seminar data.

이라고 부르며 1,075개 대학 중에서 研究生院長이 있는 곳은 33개 대학뿐이다.

북한에서는 대학원을 '연구원'이라고 하며 러시아제도를 따라서 연구소에서도 준박사와 박사학위를 줄 수 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특히 자연과학분야의 경우 석사학위는 박사학위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 주는 학위로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하였을 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다.

옥스퍼드대학의 경우 졸업 후 4년이 지난 후 소정의 금액만 지불하면 M.A.(문학석사)학위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M.A. 학위를 가진 사람들만이 옥스퍼드대학의 명예총장(Chancellor) 선출에서 투표권을 가질 수 있다. M.S.C., M. Phil., M. Lit 등의 학위는 논문을 제출해서 받는 석사학위이다.

우리나라의 제도는 미국제도와 비슷하기는 하나 석사 2년, 박사 3년 이상 등의 경직된 제도이며 대학원장이라는 직책은 대개 예산권·인사권이 없으면서도 총장 다음으로 대우받는 자리가 되었다. 미국에서는 대학원장이 교무처장보다 하위직책이다.

한국에서는 舊制박사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으나 일본에서는 아직 남아 있고 러시아의 박사학위제도는 바로 우리의 舊制박사와 같다.

그리고 영국의 Doctor of Science 제도는 Ph. D.를 받은 사람이 수년 후에 그동안의 업적을 종합정리해서 제출하면 받는 학위이다. 세계 각국 대학과 대학원 현황은 위의 〈표 1〉과 같다.

2. 韓國 大學院의 현황

현재 우리나라에는 국립 23, 공립 1, 사립 76개 등 모두 100개의 일반대학원이 있고 235개의 전문대학원이 있다.

뒤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대학원

〈표 2〉 1992년 계열별 재적학생수와 졸업생수

계열	학과수	'92년 입학정원	학부학생수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위취득자수		
						학사	석사	박사
인문계	701	32,360	154,298	7,756	2,295	29,253	2,133	487
어문학	501		115,539	3,452	1,571	22,796	1,076	348
인문학	200		38,759	4,304	724	6,457	1,057	139
사회계	829	51,380	287,404	23,588	2,656	49,453	5,627	576
자연계	1,746	89,985	448,899	22,578	7,034	66,356	7,288	1,132
이학	549		126,432	5,682	2,018	20,072	1,903	308
공학	766		240,835	13,334	3,532	31,906	4,170	567
농림학	248		50,145	2,463	930	7,989	826	163
수산해양학	30		5,580	277	110	821	85	13
가정학	153		25,907	822	444	5,568	304	81
의약계	176	7,665	41,312	5,847	3,219	6,725	2,150	806
예체계	413	16,785	74,772	4,491	312	12,390	1,367	63
예술	321		56,006	3,746	39	9,690	1,103	2
체육	92		18,766	745	273	2,700	264	61
사범계	450	13,565	63,484	16,162	644	14,454	3,873	147
총계	4,315	211,740	1,070,169	80,417[1] / 96,577	16,160	178,631	22,438	3,211

*주 :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40,924명과 전문대학원 석사과정 39,493명을 합한 수임.
*자료 : 『교육통계연보』, 1992.

〈표 3〉 한·중·일 3개국의 비교 (단위 : 명)

구분	학부학생수	대학원학생수	교수수	학생 : 교수
한국	1,070,169	96,577	36,484	32 : 1
일본	2,052,335	98,650	125,784	16 : 1
중국	2,066,000	80,000	393,000	5.3 : 1

*자료 : 한국 : 『교육통계연보』, 1992.
일본 : 平成3年度 學校基本調査報告書.
중국 : 日本銀行調査統計局, 『國際比較統計』, 1991.

석사과정에 40,904명, 전문대학원 석사과정에 39,493명, 그리고 박사과정에 16,160명 등 모두 96,577명의 재적학생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의 대학원생수는 일본과 비슷하지만 학생 대 교수의 비는 일본보다 두 배나 된다.

우리나라 대학원이 질적 향상은 뒷전으로 돌리고 양적인 팽창을 하게 된 첫째 이유는 교육법 제109조라고 할 수 있다. 1992년까지는 대학이 대학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대학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실한 대학원이 많이 생기게 되었다.

둘째는 대학의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함과 학위위주의 경향 때문에 수많은 전문대학원이 생긴 것이다.

'92년 현재 대학원 학생수가 200명 이하인 일반대학원이 46개나 되며 100명 이하인 곳도 33개나 된다. 물론 학생수가 적다는 것이 그 대학원에서 배출하는 학위의 질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는 무조건 대학원이 있어야 된다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개방대학으로 시작한 대학 8개교 중 5개교에 대학원이 설치되어 있다. 최근에는 교육대학에도 대학원을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학원 인가 자체가 교육부의 소관으로서 엄밀한 조사와 평가 없이 행정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한 학과당 교수의 수가 6명 이내인 대학에서 학사·석사·박사를 배출할 때 그 학위의 질을 보장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교육부에서는 박사정원을 자진 반납하는 대학에는 석사정원을 늘려주고 석사정원을 반납하는 대학에는 학사정원을 많이 늘려준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이 될지 의문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석·박사 정원을 대학에 일임하는 것이겠지만, 불행하게도 우리의 대학들은 그러한 자율성을 가지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본다.

〈표 4〉 박사학위 다수 배출교

대 학	1991~1992	누 계
서 울 대	534	5,749
고 려 대	267	2,769
연 세 대	214	2,302
경 북 대	139	1,623
전 남 대	137	1,489
한 양 대	199	1,368
경 희 대	99	1,329
한국과기원	260	1,308
부 산 대	105	1,292
중 앙 대	117	1,105
가톨릭대	51	1,054
전 북 대	112	778
충 남 대	95	749
성균관대	113	719
동 국 대	72	629
건 국 대	-	535
조 선 대	53	554
영 남 대	63	507
이화여대	49	442
동 아 대	65	405
단 국 대	52	402
원 광 대	59	395
인 하 대	41	328
계 명 대	44	204
명 지 대	36	195
기 타	372	1,850
총 계	3,348	30,080

한편, 일부 대학 일부 학과에서는 교수당 대학원생수가 15~20명이나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본다. 대학원에서의 교수와 학생의 관계는 徒弟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학생수가 10명이 넘는 경우에는 논문지도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다. 특히 공과의 경우 수탁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대학원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정하나 지나친 양적 팽창은 자제하여야 한다.

연간 박사학위 취득자가 3,211명이나 되는 한국의 논문발표수가 세계 38위 정도임을 생각하면 한국의 대학원교육에는 근본적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교수의 수가 앞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1개국 중 최저수준이다. 둘째, 대학예산의 영세성으로서 다음에서 상세하게 논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원 인가의 남발로 박사학위가 대량생산되는 것이다. 앞의 〈표 4〉는 박사학위 다수 배출교를 보여준다.

3. 大學 豫算 : 외국과의 비교

필자가 1992년 학과평가시 방문한 10개 대학의 예산을 〈표 5〉에서 볼 수 있다. 미화로 환산하면 최고 1억 350만 달러에서 최저 2,575만 달러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경우 등록금 수입이 최고 85.4%이고, 국립대학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예산의 70% 이하임을 알 수

〈표 5〉 학과평가 방문대학 현황

대 학 교	학부학생	대학원	특수대학원	학생계	교수	조교	직원	연간예산	국고보조 또는 납입금수입
A대(국립)	12,120	550	416	13,086	523	127	413	362억	67.7%
B대(국립)	16,774	1,576	1,012	19,362	754	163	1,187	522억	64.5%
C대(국립)	4,762	324	153	5,239	207	68	298	206억	74.7%
D대(사립)	13,451	214	704	14,369	296	173	256	337억	85.4%
E대(사립)	17,882	780	636	19,298	526	157	412	529억	85.0%
F대(사립)	19,751	2,345	1,575	23,671	650	500	585	768억	72.8%
G대(사립)	9,043	529	367	9,939	214	196	198	279억	80.3%
H대(사립)	21,218	2,125	1,750	25,093	703	760	861	815억	70.0%
I대(사립)	20,688	3,750	3,062	27,500	961		549	828억	63.0%
J대(사립)	17,409	1,018	1,098	19,525	433		588	481억	78.0%

〈표 6〉 영국의 대학 현황

구 분	캠브리지	옥스퍼드	임페리얼	에딘버그	버 밍 햄
학 부 학 생 수	10,447	10,214	4,410	10,050	10,400
대 학 원 학 생 수	3,473	4,045	2,110	2,932	4,000
합 계	13,920	14,259	6,520	12,982	14,400
교 수 (전 임)	1,600	1,494	680	1,203	1,700
학 생 대 교 수	8.7 : 1	9.5 : 1	9.6 : 1	10.8 : 1	8.5 : 1
직 원 · 연 구 원	5,700	4,922[2]	2,910		2,300
단 과 대 학	21	16	7	10	7
연 간 예 산	$340.8M[1]	$302M[3]	$221M	$212.7M	$215M
장 서	7백만(추정)	8백만(추정)	364,000	2,000,000	1,850,000
학생 1인당 장서	503	560	56	154	128
학생 1인당 예산	$24,483	$21,180	$33,852	$16,384	$14,943
설 립 연 도	1209	1167	1907	1583	1843

*주 : 1£ = $1.537. 1) College 예산 제외, 2) 연구원 1,660명 포함, 3) 43 Colleges 예산 제외.

〈표 7〉 캐나다의 대학 현황

구 분	맥 길	토 론 토	브리티쉬 컬럼비아	웨 털 루
학 부 학 생 수	22,503	46,108	24,675	17,307
대 학 원 학 생 수	7,481	10,026	5,329	1,810
합 계	29,984	56,134	30,004	19,117
교 수 (전 임)	2,390	4,564	1,880	1,420
학 생 대 교 수	12.5 : 1	12.3 : 1	16 : 1	13 : 1
직 원 · 연 구 원			3,450	1,642
단 과 대 학	14	17	12	7
연 간 예 산	$299M	$571M	$472M	$131M[1]
장 서	5,542,240	7,000,000	6,400,000	2,400,000
학 생 1인 당 장 서	185	125	213	92
학 생 1인 당 예 산	$9,972	$10,175	$15,733	$6,852
설 립 연 도	1821	1827	1908	1959

*주 : Amount in U.S. dollars. 1 U.S. $ = 1.27 Canadian dollar. 1) excluding research income.

있다.

학생 1인당 예산을 미화로 표시하면 최저 3,370 달러에서 최고 4,055 달러로 외국에 비해서는 1/10 수준이다. 영국, 캐나다, 호주, 일본 및 미국 대학들의 현황은 위의 〈표 6〉에서 뒤의 〈표 10〉과 같다.

세계적 명문대학들은 장서가 4백만 권 이상임을 알 수 있다. 한국 대학들의 장서는 평균 23만 권에 불과하며 서울대가 1,382,348권, 고려대가 1,097,469권, 연세대가 806,055권이다.

학생 대 교수비는 10 : 1 수준이며 학생 1인당 예산은 우리나라 대학에 비하여 10배 내지 20배나 됨을 알 수 있다. 京都大學의 연간예산이 우리 돈으로 5,400억 원으로서 한국의 27개 국립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예산 5,191억 원보다도 많으나 지금 일본에서는 대학에 대한 투자가 적다고 야단들이다.

4. 政策的 考慮 사항

1) 敎育法 개정

1992학년도부터 대학과 대학교의 구별이 없어졌으므로 교육법 제109조 "대학교에는 3개 이상의 단과대학과 대학원을 둔다."라는 조항은 마

〈표 8〉 호주의 대학 현황

구 분	ANU	멜버른	시드니	UNSW	모나쉬
학부학생수	7,388	23,626	23,622	19,947	29,296
대학원학생수	972	2,918	6,345	5,079	3,500
합 계	8,360	26,544	29,967	25,026	32,796
교수(전임)	2,506	3,237	2,076	1,769	3,133
학생대교수	3.3 : 1	8 : 1	14 : 1	14 : 1	10 : 1
직원·연구원			3,359		
단과대학	6	12	16	15	10
연간예산	$213.6M	$237M	$296M	$278.5M	$175.7M
장서	1,602,781	2,555,624	4,200,000	1,500,000	1,800,000
학생 1인당 장서	192	96	140	60	55
학생 1인당 예산	$37,799	$8,928	$9,878	$11,129	$5,359
설립연도	1946	1853	1850	1949	1958

*참고 : Amount in U.S. Dollars. 1 U.S. dollar=1.48 Australian dollar.

〈표 9〉 일본의 대학 현황

구 분	규슈	교토	게이오	도쿄
학부학생수	11,087	13,072	25,437	16,077
대학원학생수	3,013	4,455	2,202	7,108
합 계	14,100	17,527	27,639	23,185
교수(전임)	2,103	1,572[1]	1,435	2,387[4]
학생대교수	6.7 : 1	11 : 1	19 : 1	9.7 : 1
직원·연구원	2,597	2,754		5,633
단과대학	10	10	6	10
연간예산	$500M	$675M[2]	$1,044M[3]	$971M[5]
장서	2,953,933	5,059,360	2,041,349	6,646,133
학생 1인당 장서	209	289	74	287
학생 1인당 예산	$35,460	$38,512	$37,783	$41,902
설립연도	1911	1897	1858	1877

*주 : 1 U.S.$=¥125.80. 1) 助手 1,057명 제외, 2) 병원예산 $148M 포함, 3) 의료수입 $250M 포함, 정부보조 $61M, 4) 助手 및 연구원 1,578명 제외, 5) 병원예산 $197M 포함.

망히 폐지되어야 한다. 학부과정이 없이 대학원만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하며, 대학교에는 단과대학 없이 학부나 학과만을 둘 수 있는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 또 학부 밑에는 반드시 학과를 둘 필요도 없다.

영국, 독일, 러시아 등에서는 단과대학을 Faculty라고 부르며 College라고 하지 않는다. 단과대학은 College, 종합대학은 University라는 等式개념을 없애야 한다. 일본에서는 대학교 대신 '대학'이라고 하며 단과대학은 學部라고 부른다.

2) 學點數 조정과 碩·博士 統合 운영

대학원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은 문교부훈령 제 8 호(1953. 10. 20)와 각 대학 학칙에 의하여 석사 24학점, 박사 60학점으로 되어 있으며 석사는 대학원에서 1년 이상, 박사는 3년 이상 수학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석사 2년, 박사는 석사취득 이후 3년 이상으로 되어 있다.

독일, 프랑스, 영국, 러시아 등에서는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점소요가 없다. 미국에서도 사립 명문대학들의 경우 학점소요는 매우 신축성 있게 운영된다.

박사과정은 학점보다는 논문이 중요하다. 그

〈표 10〉 미국의 대학 현황

구 분	하 버 드	버 클 리	M.I.T.
학 부 학 생 수	7,038	21,660	4,307
대 학 원 학 생 수	11,399	8,712	5,229
합 계	18,437	30,372	9,356
교 수 (전 임)	2,121	1,500	1,008
학 생 대 교 수	8.7 : 1	20 : 1	9.5 : 1
직 원 · 연 구 원	11,164	9,300	3,645
단 과 대 학	11	14	6
연 간 예 산	$1,262M	$815M[1]	$800M[2]
장 서	12,169,049	7,854,630	2,200,000
학생 1인당 장서	660	259	231
학생 1인당 예산	$68,449	$26,834	$85,500
설 립 연 도	1636	1868	1865

*참고 : 하버드 ; 재단수입 18.9%, 기부금 11.3%, 납입금 25.4%, 기숙사비 6.1%, 외부수탁연구 38.4%.
* 주 : 1) 주정부 48.2%, 연방정부 20.1%, 등록금 12.2%.
2) Lincoln Lab을 제외한 추정치.

러나 석사 이후 36학점을 이수하려면 보통 4학기가 소요된다. 따라서 논문연구가 소홀해질 염려가 있으므로 최소한 이공계통에서는 박사 60학점을 42학점으로 줄이는 것이 좋다고 본다. 실제로 한국과학기술원에서는 42학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생들의 등록금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이것을 반대하리라고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처럼 박사과정을 수료(6학기)만 하면 등록금을 내지 않는 것을 지양하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는 '연구학점'을 반드시 이수하게 해서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하게 하면 될 것이다. 현재 포항공과대학에서는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학문분야에 따라 석사학위를 받지 않고 박사논문을 쓸 수 있게 해야 된다. 도중에 박사논문을 완성하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석사학위만 주고 내보내야 된다. 이와 같은 문제는 전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좋다. 대학원제도를 잘 모르는 교육부 관리들이 대학을 통제하고 있는 것만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한다.

3) 學位登錄制 폐지

학위등록제를 조속히 폐지하여 대학의 敎權을 보장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13년간 학력고사의 시행으로 대학에서는 실질적으로 학생선발권도 뺏기고 학위증에도 교육부의 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므로 학위를 수여하는 권한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

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평가인정제도를 통해서 제재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4) 學位論文의 學術誌 게재 의무화

박사학위논문은 국내 또는 국외학술지에 게재결정이 난 후에만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본에서는 이것을 잘 지키고 있으며 현재 한국과학기술원과 포항공과대학에서는 국제학술지에 논문게재 결정이 난 후에만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위논문의 표절도 방지할 수 있고 논문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5) 大學院敎授制 도입

일반대학원에 전임교수를 두는 것은 우리 대학의 재정형편상 어려운 일이므로 대학원교수(graduate faculty) 제도를 도입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후 최소 2~3년의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박사학생을 지도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박사학위는 없더라도 경력이 충분한 교수는 대학원교수로 임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는 박사학위과정에 있는 조교수나 부교수가 박사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포항공과대학에서는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이 안 된 사람은 객원조교수로 임명하고 객원조교수는 박사학생을 지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6) 大學院生 指導時間 인정

대학원생을 제대로 지도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재 교수들의 주당 책임시간 9시간에는 대학원생 논문지도에 소요되는 시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는 대학의 재정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박사과정학생 3명 또는 석사과정학생 5명을 지도하는 것은 한 과목 강의을 수행하는 것과 동등하다는 공식이 필요하다. 물론 그 숫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주당 9시간이 책임시간이지만 연구를 많이 수행하는 교수에게는 3시간 또는 6시간을 면제해 준다. 그 대신 교수는 자신의 연구비에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봉급을 받고 대학예산에서는 봉급을 받지 않는다.

7) 論文審査 5심제의 폐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박사논문심사 5심제는 논문의 질 향상에는 이바지하지 못하고 학생에게 과도한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조속히 폐지되어야 한다. 제대로 하는 심사는 1회만 하여도 된다. 학생이 박사논문을 완성하였을 때 심사위원들에게 적어도 1주일 전에 배부하여 읽게 하고 최종심사만 받으면 된다. 심사과정에서 잘못된 것이나 보완할 점을 지적해 주고 한 번 더 심사위원회를 소집하면 된다.

물론 논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는 지도교수가 학생을 수시로 만나서 지도하면 되는 것이지 심사위원을 모두 같이 만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심사과정이 제대로 된다면 표절시비는 있을 수 없다. 박사논문이 표절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심사위원들은 그 논문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심사위원의 자격이 없다는 뜻이 된다.

8) 專門大學의 대학승격 문제

현재 151개의 4년제 대학들 중 상당수가 전문대학에서 4년제로 승격된 학교들이다. 지난 20년간의 급속한 대학팽창과정에서 일어난 일들이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전문대학들이 필요에 따라 4년제 대학으로 되는 것 자체는 크게 반대할 필요가 없으나, 그 후에는 대학원이 설치되어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데 문제가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문대학 교수들도 대학원학생을 지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처럼 획일성이 통하는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그러한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4년제 대학이 된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수진과 시설을 보강한 후에 대학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교육대학의 대학원 설치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다. 교육대학의 목적은 국민학교 교사양성이고 학문연구를 하는 곳은 아니라고 본다. 기존의 사범대학과 교원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영국에서는 28개의 polytechnics가 university로 개칭되었다. 그러나 이들 대학에서는 석·박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9) 專門大學院의 양적 팽창

현재 우리나라에는 235개의 전문대학원이 있으며 학생수도 일반대학원의 석사과정 학생수와 비슷하다. 이들 대학원은 전임교수와 독자적 시설이 전혀 없이 운영되며 대학등록금 수입의 상당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학력인플레에도 큰 영향을 주어서 정치인치고 전문대학원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다.

미국의 law school, medical school, management school 등은 모두 전문대학원으로서 J.D., M.D., M.B.A., D.B.A. 등의 학위를 주며 전임교수와 독자적인 시설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하버드와 예일 대학은 학부과정이 단일단과대학(college)으로 되어 있고 그 대신 전문대학원이 10여 개 있다. 즉, 학부과정에서는 전공보다는 교양과목에 치중해서 폭 넓은 교육(liberal education)을 받고 전문대학원에서 법학, 의학, 경

영학, 행정학, 건축, 음악, 신학, 수의학, 치의학, 교육학, 약학, 보건학 등을 공부하게 된다. 일반대학원은 Graduate School of Arts and Sciences라고 부르며, 전문대학원에서 다루지 않는 학문중심의 연구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한국의 전문대학원이 진정한 professional school이 되지 못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10) 醫學 碩士 제도의 폐지

영국의 의과대학은 6년제이며 졸업하면 B.M. (Bachelor of Medicine) 학위를 받으며 의사로서는 그 이상의 학위가 필요하지 않다. 옥스퍼드대학의 의대졸업생은 입학 후 12년 후에 그 동안의 업적을 심사하여 별도의 논문 제출없이 D.M. (Doctor of Medicine) 학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의 B.M. 소지자나 한국의 의학사 소지자도 미국에 가면 M.D. (Doctor of Medicine) 칭호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의 의과대학은 학부 4년을 포함하여 8년제이며 졸업하면 누구나 M.D. 학위를 받는다. 의과대학 교수를 희망하는 사람 M.D.-Ph.D. 과정을 택하여 의과대학 진학 후 6년 동안에 두 개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에나 석사학위를 받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의과대학은 6년제이므로 의학사 대신 의학석사를 주는 것이 옳다. 현재 인턴, 레지던트과정에 있는 수련의들은 동시에 의학석사 과정을 이수하는 경우가 많다. 임상의사들은 전문의 시험에만 합격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학위위주의 사회풍토 때문에 전문의과정에서 박사학위과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 필자의 의견으로는 불필요한 돈과 시간의 낭비이다. 의학사 대신 의학석사를 받으면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의학박사과정을 밟으면 된다.

11) 同種繁殖(inbreeding)

현재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모교대학원에 진학하여 같은 교수 밑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치고 그 대학의 조교수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학문적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첩경이다. 특히 그 지도교수의 학문분야가 선진국에서는 완전히 빛을 잃고 전망이 불투명한 경우에도 사회의 수요와 아랑곳없이 제자를 길러내는 수가 많다. 이것이 inbreeding의 해독이다. 또한 학생의 입장에서 볼 때 학문의 다른 접근방식을 배울 기회가 없고 학문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된다.

최근 이러한 문제는 호전되는 것이 아니고 더 심각해지고 있다. 대학총장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모교출신 교수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도에 의하면 서울대, 연세대와 고려대 교수들의 모교 학사과정 출신비율은 각각 95.8%, 89.5%와 82.2%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모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의 비율이 각각 33.1%, 45.3%와 43.3%나 된다.

일본과 러시아도 일반적으로 inbreeding이 많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정교수를 학내에서 승진시키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초빙해 오기 때문에 inbreeding이 적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학사과정을 마친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계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의 대학은 모교출신 박사를 바로 조교수로 임명하는 사례도 많지 않다. 다른 대학에서 수년간 경력을 쌓은 후 다시 발탁해 가는 경우가 많다.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타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과감하게 권고하여야 inbreeding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이다.

12) 人文社會系에 대한 연구비 지원

대학의 선진화 없이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만 발전한다고 해서 국가의 선진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문화적으로 존경받는 국가가 되려면 인문·사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최근 공과대학에는 많은 수탁연구과제가 들어오고 있으며 연구비도 대체로 많은 편이다.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산업체의 수탁연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중에서 상당 부분을 그 분야에 할애해야 된다. 물론 경영학분야는 일반적으로 연구비와 자문비 등이 풍부한 것으로 안다. 이공계의 연구비 사용에 있어서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원고료

를 연구비에서 받지 않으나 인문계통에서는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름뿐인 대학의 부설연구소들을 정리하고 그 대신 소수의 연구소에는 집중적으로 연구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20세기가 다 가기 전에 통일을 기대하면서도 통일에 대비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세계 각국의 지역연구(area study)도 중요하다. 무역규모가 세계에서 12위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역연구가 우리처럼 빈약한 경우도 없을 것이다.

13) 敎育稅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원)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대학교육의 78%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대학의 재단전입금은 극히 미미하고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는 대학(원)교육의 정상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따라서 선진국 진입도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방위세와 같은 교육세를 새로이 법제화하여 세금수입을 올리고 전액을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를 하지 않고 좋은 교육을 기대하는 것은 예금하지 않고 돈 찾으러 가는 것과 같다.

14) 高等敎育部의 신설

'92년도 교육부 예산은 8조 8천억 원으로서 정부예산의 22.6%에 해당된다. 그 중 81%가 초·중등교육에 사용되고 있으며, 27개 국립대학에 배분하는 예산은 5,191억 원에 불과하며 100여 개 사립대학 지원금은 400억 원밖에 안된다. 따라서 대학교육이 교육부에 속해 있는 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편, 과학기술처의 연간예산은 5천억 원 정도이다. 그러므로 대학교육과 과학기술처의 기능을 합하여 고등교육부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실제로 현재 러시아정부의 조직은 이와 같이 되어 있으며 Ministry of Higher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ical Policy라는 긴 이름을 가지고 있다. 인문사회분야에서 이러한 제안에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본다.

〈표 11〉 박사복의 후드색

구 분	한 국	미 국
문 학	흰 색	White
철 학	청 색	Dark Blue
정치학	베이지	없음
경제학	갈 색	Copper
이 학	노랑색	Golden Yellow
경영학	짙은 갈색	Drab
공 학	주황색	Orange
교육학	연한 청색	Light Blue
법 학	보라색	Purple
약 학	연한 그린색	Olive Green
치의학	핑 크	Lilac
의 학	빨간색	Green
농 학	그린색	Maize
수의학	회 색	Gray
보건학	연한 핑크색	Salmon Pink
행정학	짙은 자주색	Peacock Blue
수산학	청 색	없음
신 학	빨간색	Scarlet
한의학	연한 녹색	없음
간호학	살구색	없음
음악학	없음	Pink
미술학	없음	Brown

5. 博士學位服의 후드色 통일

미국에서는 1893년에 大學間委員會(Intercollegiate Commission)에서 여러 가지 학위복 후드의 색을 통일하여 현재 대부분의 대학이 이를 따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종의 박사학위가 있는데 미국제도와 대체로 비슷하나 다른 것도 있다. 반드시 미국제도를 따를 이유는 없고, 일단 우리 제도로 정착된 것을 계속 사용하면서 각 대학이 통일할 필요가 있다. 어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지 흰색의 후드는 문학박사이고, 빨간색은 의학박사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후드의 안감(silk lining)은 그 학위를 수여한 대학의 고유색이라야 한다. 각종 박사복의 후드색은 위의 〈표 11〉과 같다.

6. 結 論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대학원의 급속한 양적 팽창을 이루었을 뿐 질적 향상에는 눈을 돌

리지 못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정책적 고려사항 14가지 중에서 대학이 할 수 있는 것은 학위논문의 학술지 게재, 대학원교수제 도입, In breeding의 방지 등 몇 가지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다.

특히 대학에 대한 정부의 예산증액 없이는 대학(원)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세계 최저수준인 교수의 수를 늘리는 것도 대학 자체로서는 불가능하며 정부의 정책적 배려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민학교의 교사 대 학생수는 33 : 1이고 중·고등학교는 각각 25 : 1 및 23 : 1인 데 비하여 대학은 32 : 1이나 된다. 교수의 정원이 늘지 않는 것은 대학에도 책임이 있다. 등록금수입이 늘더라도 교수의 신규채용 대신 교직원의 봉급 인상부터 단행하는 관행을 바꾸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弘益大가 전국에서 모범을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전문대학의 간판을 4년제 대학으로 바꾼다고 해서 대학교육이 제대로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신설대학의 인가는 가급적 억제하고, 특히 신설대학에는 반드시 공과대학을 설치해야 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공과대학은 아무 설비도 없이 적은 수의 교수로 교육할 수가 없다.

대학의 신설 및 학과설치의 인가, 특히 대학원 석·박사과정의 인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말로만 해왔던 우수대학에 대한 정원통제 해제, 학사행정 등에서 완전히 자율권을 허용하기 바란다. 우선 금년에 선정될 대학원중심대학에 대하여 미국 수준의 자율권이 주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대학들도 점차 체제를 정비하여 질 높은 대학원교육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